

수도권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가사직업수행과 코하우징 요구의 차이

Housework Performance and Difference of Cohousing Need Depending on the Housewife's Employment Status in the Metropolitan area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 전공
교수 최정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학과 주거학전공
박사수료 한주희

Division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Faculty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 Choi, Jung-Shin

Completion of doctoral course : Hahn, Joo-Hee

◀ 목 차 ▶

I. 서론	IV. 조사결과 및 해석
II. 연구내용과 방법	V. 결론
III. 이론적 배경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d of this research was to suggest a basic material of Korean-typed cohousing plan for a dual-income family by examining the difference of cohousing residing environment needs. Selecting Employed and unemployed housewives as this research's subject, the following results were drawn from the analysis between the two groups.

1) The housewives takes responsibility of the household work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are employed. Also, more than half of employed housewives stated that the time of nursery facilities was shorter than their needs and that they favored a nursery facility located inside the residential area.

2) The most meaningful difference of cohousing residing environment needs was the demand for sharing household work in terms of cohousing need of the subjects. The desirable cohousing area is the suburbs of the metropolitan areas and the preferable resident organization is need to be organized by people sharing the same goal through an announcement.

3) The need of cohousing and residence intention were generally low, but the employed housewives' need was higher than the unemployed ones.

주제어(Key Words): 주부의 취업(Employment of housewife), 가족생활(Family life), 코하우징 요구(Cohousing need)

I. 서론

1. 연구의 배경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1985년 이후 여성취업실태 조사를 4차에 걸쳐서 조사하였는데, 조사에 의하면 여성노동시장 상황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즉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나 가족의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제4차 조사(2002)에 의하면 여성 취업자의 고용구조에서 학력, 혼인상태(혹은 연령계층)별 구분이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각 업종마다 혼인상태별, 연령별, 학력별 차이가 줄어들어 가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취업만족도 조사에서는 자녀출산, 결혼과 같은 변수들이 여성 취업자의 취업지속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확실히 감소해가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으며, 여성들의 취업의지가 일시적이기보다는 지속적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태도 조사에서는 1997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태도 비율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매우 찬성하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 구분에 의하면, 취업 혹은 실업상태에 있는 기혼여성의 남편은 여성취업에 대해서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근 부부간에 동료관계를 강조하고 결혼의 동반자적 이상을 추구하는 새로운 가족이념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 간에 남아 있는 불평등은 현저하게 나타난다. 즉 여성은 가사노동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기대되고 특히 아동양육은 전형적인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되는데 이것은 상징적·물리적 의미에서 주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루스 매디간, 모이라 먼로, 홍형욱 역, 1995: 133-152). 산업화 전에는 남성들이 주거나 집 근처에 있는, 아내를 포함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근접한 곳에서 일을 하였다. 또한 가사작업은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산업화의 도래로 가장인 남성들은 생계비를 벌기 위해 주거 밖으로 옮겨가야 했고, 가사일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따라서 주거는 여성의 영역이고 외부세계가 남성 영역이라는 것이 오랫동안의 문화적 기대였다. 이것은 성별에 따른 행위 및 일터와 거주지의 격리와 일치한다.

오늘날 대다수 주택의 디자인은 주부가 다른 주부와 서로 나누어 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상업적인 용역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되어 있어 많은 가사를 혼자 담당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주부의 일을 도울 시설의 부재는 모든 가사업무를 주부 개인이 수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각각의 주부는 다른 주부들도 하고 있는 일을 동시에 그리고 같은 기기를 가지고 하고 또 한다. 이런 일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수행된다(Karen A. Frank, 최영순 편역, 1995: 271-287). 김수경, 윤정숙(2002)의 '한·일 취업주부의 가사생활 실태 및 주거요구 비교' 연구에서도 맞벌이 가족은 가족특성, 가사와 자녀양육에 관련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요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취업주부의 가사와 자녀양육을 지원해주기 위한 설비의 가사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단위주거 계획 1), 가사서비스 지원형 주거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주택은 독립된 단위로 구성되어 핵가족의 거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주택의 구조는 가족생활의 사적인 운영을 강화하고 가족끼리의 의존성을 바탕으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어있다(이경희, 2000). 따라서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으로 인한 이웃과의 사회적인 관계, 공동체적 생활체험의 단절은 가사와 육아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족에게는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독립된 부엌보다 다른 공간과 연결이 잘 된 부엌계획, 가족의 상호작용과 가사일 분담을 유도하는 평면 개발 및 설비의 배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보다 기혼여성의 취업율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기존 개별주택의 대안으로 공동체 생활양식을 기본으로 하는 코하우징을 발달시켰다. 북유럽은 다른 사회보다 비교적 일찍부터 전통적인 핵가족 형태가 변화하고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의 비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직장 여성에게는 가사노동과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고, 혼자 살고 있는 독신자나 노인들에게는 고독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이웃간에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돕고 살았던 옛날 마을의 개념과 비슷한 새로운 주거 대안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코하우징이다 (최정신, 2003).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맞벌이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을 줄여주고, 사회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지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 대안으로 코하우징을 제안함에 있어,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가족의 생활과 코하우징 주거환경요구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맞벌이 가족을 위한 한국형 코하우징 계획의 기초 자료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가족의 생활(가사분담과 자녀양육방식 측면)에는 차이가 있는가?
- 2)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코하우징 주거환경요구에는 차이가 있는가?
- 3)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코하우징 필요와 거주 의사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 다룬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라 코하우징의 요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자녀양육과

가사업무수행의 어려움을 비교하기 위하여 막내자녀의 연령이 초등학교 이하이며,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부로 제한하였다. 2004년 2월에서 3월에 걸쳐 설문지 300부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안산, 수원, 부천, 인천, 분당, 군포)에 위치한 유치원, 초등학교의 학부모와 해당 지역 주부 등에 배부하였으며, 그 중 286부를 회수하여 그 중 취업주부 149명, 비취업주부 129명, 총 278명의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우선 설문지 첫 페이지에 코하우징의 내용을 신고, 자세히 읽은 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내용은 조사대상자 가족의 생활(가족 및 주택의 특성, 가사분담현황, 자녀의 양육방식), 코하우징 주거환경요구(자녀양육 영역에 대한 요구, 가사분담영역에 대한 요구, 공유공간 활용에 대한 요구, 거주자 참여에 의한 주거계획 및 관리 요구), 희망하는 코하우징 지역 및 주민구성, 코하우징의 필요 및 거주 의사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코하우징 주거환경요구를 묻는 19문항과 코하우징의 필요 및 거주 의사를 묻는 2문항은 '매우 그렇다(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4점 척도로 높은 점수는 요구정도가 큰 것을 나타낸다.

조사도구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코하우징 주거환경요구 항목의 응답내용에 대해 내적 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이용하여 검정한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 $\alpha = .8666$ 로 나타나 본 조사도구의 신뢰성이 인정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t-test, χ^2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III. 이론적 배경

1.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가족의 생활

한국여성개발원의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2002)에 나타난 조사대상 부부 상호간 경제활동상태 분포를 보면 남편 혼자 취업한 부부가 47.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맞벌이부부가 36.6%로

많았다. 또한 경제활동상태별 연령분포를 보면 남편 외벌이부부가 맞벌이에 비해 젊은 연령층이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즉, 맞벌이 남편은 40대(39.9%)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외벌이 남편의 경우 30대가 35.1%로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다. 부인의 경우 역시 맞벌이는 40대(42.0%)가, 외벌이는 30대(39.1%)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보다 외벌이 부부의 연령이 더 낮은 이유는 임신 및 육아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한국여성개발원, 2002). 이미숙(1995)은 그의 박사논문에서 부인이 취업한 경우,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남편의 가사 및 자녀양육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또한 부인의 직종 및 관련 변수들에 따라 수행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절대적 수행 수준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인의 이중역할이 보편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현대 한국사회의 취업부부들은 부부간에 매우 불공평한 역할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육체적인 피곤함과 더불어 역할 수행이 성공적이지 못할 때는 정신적으로 딜레마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직장가정에서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이 자녀양육이나 교육을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비취업여성의 경우 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고 가사를 돌보는 시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158-163). 또한 여성과 남성의 성적 노동분담은 주거공간에서 구체화 되는데, 여성들에게 있어서 주거공간 전체와 가족 개개인은 가사노동이 이루어지는 대상이며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가사노동은 주부가 주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일들이다. 따라서 주거공간에서 가사노동을 줄이고 자녀양육을 쉽게 하고자 하는 노력은 많은 여성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성들의 가사노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새로운 공간의 계획에서, 그리고 한편에서는 사회적인 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19세기의 서구의 유토피안 사회주의자들은 실험적인 공동체 생활을 계획하고 여성들이 단조로운 일로부

터 해방되도록 하였다. 1990년대 초반 스웨덴과 덴마크의 건축가들은 공동주택을 소재로 하여 노동공간을 공유하고 일을 분담하는 공간의 계획을 시도하였다(이경희, 1996).

2. 주거대안으로서 코하우징의 고찰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은 전업주부의 핵가족을 기준으로 계획되어 공급되고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 독신자 등과 같은 특정 수요계층을 위한 주택개발은 활발히 연구되어 보급되었으나, 그들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취업주부에 대한 고려는 주택개발시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북미와 유럽처럼 맞벌이 부부나 재택근무가 보편화된 경우, 주택평면 계획에 의존하기보다는 단지계획적인 측면에서 취업여성을 위한 제도적인 고려가 있는 실정이다. 덴마크의 코하우징과 스웨덴의 커뮤니티하우징(Communal housing) 등이 그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취업주부가 점차로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과 주의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아파트를 분양하기에 이르렀다(대한주택공사, 1999). 따라서 이제는 여성취업자도 특정 요구를 가진 수요계층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들의 생활을 지원해주는 주거공간 및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물리적 환경이나 필요한 물리적 시설의 결합이 여성취업의 장애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물리적인 환경을 변화시켜줌으로써 가족의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을 유도하여 취업주부에게 지어진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동시에 여성의 사회참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코하우징의 개념

코하우징은 전통적인 집의 형태보다 공유공간이나 집단적으로 조직된 시설이 많은 형태를 말한다. 공동부엌에 개별 아파트가 있는 전통적인 스칸디나비아의 코하우징은 1930년대 기능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주택에서는 가사노동을 단순화시키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산

업사회에서 생산성을 높이자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고전적인 코하우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여성 노동력을 해방하여 국가 경제에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Vestbro, 1997). 또한 코하우징 발전의 주요한 힘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자극이 되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아이는 코하우징에서 형제관계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부모들도 더 쉽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 (Vestbro, 2000).

2) 코하우징의 물리적 구성

코하우징의 디자인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두 비슷하다. 별도의 부엌과 욕실이 딸린 작은 개인주택 몇 채와 욕의 공간에 배치된 적당한 규모로 된 한 두개의 공동생활시설로 구성된다. 공동생활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단지 총 건평의 15~20% 정도이다. 공동생활시설에서는 부엌, 식당, 세탁실, 취미실 등을 공동체의 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며 가능하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togetherness)” 사회적 접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중요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층의 연립주택이나 블록(block)형태로 주택을 계획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계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지만 때로는 기존 건물이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주거단지를 개조하여 만들 수도 있다. 주거단지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룹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는 보다 작은 그룹, 즉 20~30개의 주택에 40~50명 정도의 주민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최정신, 2003).

3) 코하우징의 거주자 특성

덴마크에서 시작한 코하우징에서는 서로 다른 계층,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코하우징의 주민은 협동체 생활을 지지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코하우징의 사람들은 단순히 함께 살 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적인 일들을 나누어 하므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공동시설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인가는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

택한다.

4) 코하우징의 참여와 운영

고전적 의미의 코하우징은 1940년대에 스웨덴에서 여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의 조리작업과 가사노동 경감을 위하여 유료로 서비스를 공급받는 위탁관리의 형식에서 출발하여 1970년대 이후에 차츰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 식사준비, 주거관리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자치관리 형식의 현대적인 코하우징으로 개발되었다. 공동 활동에는 전형적으로 공동의 저녁식사(일주일에 2~7일), 세탁·장보기 등의 가사일과 육아, 저녁의 사교모임, 화초 가꾸기, 취미활동, 독서실 이용 등이 있다. 또한 코하우징의 소유권은 다양한데, 개인소유로 자가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공동소유로 조합주택을 지을 수도 있으며, 공영주택분야에서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지을 수도 있다(최정신, 2003).

3. 국내외 코하우징 연구동향

코하우징 계획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한 실정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국내외 발표논문과 실험적으로나마 코하우징 계획을 시도한 논문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한 노인들이 시설입주를 최대한 늦추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대안으로서 노인용 코하우징을 논한 최정신(2003)은 덴마크와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미리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미래주민집단을 결성하고, 코하우징 설립 이전에 공동생활 참여에 대한 홍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공동생활시설의 종류와 공동활동 등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서구의 모델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어 최근 연구에서 최정신(2004)은 서울 지역의 50대를 대상으로 노인용 코하우징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였는데, 응답자의 절반정도는 나이가 더 든 후에 코하우징으로의 이주 의사를 나타냈다. 응답자들은

코하우징의 안전하고 덜 외로운 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반면, 프라이버시 측면과 공동활동에 있어서는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공동활동에 익숙치 않은 50대이지만, 단지내 회의실이나 공동부엌, 공동식당과 같은 공동생활시설의 제공을 원하였으며, 스포츠 룸과 사우나, 정원, 테라스 등의 공간은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정신(2004)은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방법을 이용하여 이들의 생활지원 주거대안으로서 코하우징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응답자 모두는 공통적으로 자녀교육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임대주택 지원과 주거비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많은 수가 코하우징 거주 의사를 밝혔는데, 공동생활공간으로는 도서관, 공부방, 컴퓨터실, 놀이터를 가장 원하였으며, 취미실, 공동세탁실, 공동식당 등이 제공되면 편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경희(2000)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공유공간 사용실태를 검토하고, 미국의 협동주택(cohousing) 사례에 대하여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배경 하에서 이러한 대안적 주택의 어떠한 특성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검토했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우리나라 공동주택 단지 개발의 적용을 위해서는 공유공간의 적극적 계획과 소규모 단위의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주택단지개발, 제도적 측면의 지원, 새로운 주거생활 가치에 대한 교육과 리더쉽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상희(2000)는 코퍼레이티브 하우스(Cooperative Housing)에서부터 코하우징까지를 거주자 참가형 주택이라 명칭하고,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개발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거주자 참가형 주택을 위해서는 물리적 디자인, 협동생활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소단위 개발, 제도적 지원, 전문가 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어 김상희(2001)는 중소도시 거주자들의 거주자 참가형 주택에 대한 주의식 조사에서, 새로운 주거에 대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거주자 참가형 주택에 대한 구체적 요소로는 저층 위주의 소단위

개발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공유공간에 대한 낮은 인식과 프라이버시 지향적 측면으로 한국에서의 개발은 외국의 사례와는 상당히 다른 제한적 형태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신용재(2001)는 코하우징에서의 생활과 공간의 특성들이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코하우징의 생활은 독립된 가정생활(프라이버시)과 이웃생활(커뮤니티)의 균형적 조화를 지향하는 형식이며, 개별공간(주택)들의 공간축소에 의해 얻은 큰 공용공간은 단지 전체의 중심성을 확보하며 커뮤니티 지향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새시대적 주거형식이라 언급하고 있다.

이옥경(2001)은 4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노인용 코하우징에 대한 의식과 노인용 코하우징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노인용 코하우징에 대한 의식이 코하우징의 요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개인적 주생활의식이 낮을수록 노인용 코하우징을 필요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활동참여 의식과 이웃교류 의식이 높을수록 노인용 코하우징에 거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하우징의 계획을 시도한 논문사례로는 남궁서영(2001)의 코하우징 공동생활시설 계획과 임윤희(2002)의 코하우징 공동육아환경 계획, 김중인(2001)의 도시형 코하우징 건축계획, 제갈진(2004)의 노인용 코하우징 계획을 들 수 있다. 남궁서영은 20-60대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코하우징의 공동생활시설에 필요한 공간에 대한 요구에 기초하여 공동생활시설을 계획, 디자인 하였다. 임윤희는 일반 보육공간의 디자인 지침들을 적용하여 코하우징 공간에 공간별 디자인 지침을 제안하고, 코하우징의 육아환경을 계획하였다. 김중인은 도시의 공간 구조에 부합하는 도시형 코하우징을 제안하고, 실제 지역을 선정하여 건축 계획적인 접근으로 제안하였다. 제갈진은 향후 노인 주거시설의 방향 설정 및 건축계획을 위해 노인용 코하우징의 건축계획 지침 및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Dick Urban Vestbro(2000)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콜렉티브 하우징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콜렉티브 하우징의 정의와 역사, 디자인 양상에 대해 언급하고, 사회·정치적 변화에 따른 콜렉티브 하우징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한 Vestbro(1997)는 스칸디나비아의 콜렉티브 하우징에 대해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근대주거와 거주자 참여 활동에 기반을 둔 공동주거를 가족구조와 성 역할의 변화에 관련하여 두 모델을 비교, 분석하였다.

일본여자대학의 이쿠코 고야베(1994)는 거주자참여에 의한 주거계획 연구를 위해 스웨덴의 한 콜렉티브 하우스(Färdknäppen) 건설을 지켜보면서, 거주자의 특성과 이주동기, 주택계획의 참여과정, 참여에 의한 생활과 주거형태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에서 저자는 Färdknäppen은 미래거주자와 주택회사, 건축가가 함께 완성한 노인용 주택으로, 안전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서로에게 건강한 자극을 원하는, 또 다른 삶의 질을 기대하는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정신과 이연폴슨(2003)은 덴마크와 스웨덴의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들이 그들의 삶과 환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해 조사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주민의 95% 이상이 코하우징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코하우징을 떠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조사 단지의 디자인은 대부분 비슷하여 공동거실과 회의실, 세탁실, 방문객 숙소, 옥외공간 등을 갖춘 공동생활시설을 갖고 있으며, 개별주택은 평균 74.4m² 로서 2-3개의 방과 부엌을 갖추고 있다. 코하우징의 물리적 환경평가에서는 공동 목욕실/샤우나, 체육시설, 개인 창고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정신(2003)은 스웨덴과 덴마크의 노인용 코하우징을 대상으로 스칸디나비아 노인들의 코하우징 이주 동기를 조사하였다. 조사에서 주민들이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존주택 관리의 어려움과 노인용 코하우징의 기본이념이 좋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이유로는 안 전상의 이유, 편리한 건물의 위치와 아름다운 디자

인을 들었다. 이주동기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는 거주형태와 단지설립주체가 이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IV. 조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가족 및 주택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주부의 연령 분포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학력은 취업·비취업주부 모두 대졸이 가장 많았다. 취업주부의 직업으로는 전문직이 43%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25.5%, 서비스·판매직이 22.2%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부터 500만원 이상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가족특성을 보면, 가족형태에 있어서 취업주부가족은 비취업주부 가족에 비해 3대 가족의 비율이 높으나, 조사대상 가족의 많은 비율이 핵가족 형태였다. 자녀수는 조사대상 가족 모두 2자녀의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의 총 인원수는 4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막내자녀의 연령은 10세 미만의 연령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으로 제한하여 선정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주택 특성으로 주택의 형태, 주택 소유형태, 주택의 규모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주택 형태는 두 집단 모두 60% 이상이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택규모는 전용면적기준으로 질문한 결과, 취업주부의 경우 20평 이하에서 41평 이상까지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비취업주부의 경우 21평 이상 40평 이하의 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가사분담 상황

조사대상 주부의 가사분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로 집안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가사노동시간이 부족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족특성
단위 : 명(%)

항 목	구 분	취업주부 (N=149)	비취업주부 (N=129)
연 령	25세 이상-30세 미만	7(4.7)	4(3.2)
	30세 이상-35세 미만	48(32.2)	38(30.2)
	35세 이상-40세 미만	60(40.3)	47(37.3)
	40세 이상-45세 미만	27(18.1)	30(23.8)
	45세 이상-48세	7(4.7)	7(5.6)
	계	149(100.0)	126(100.0)
학 력	고졸이하	23(17.4)	33(28.9)
	대 졸	95(72.0)	77(67.5)
	대학원졸	14(10.6)	4(3.5)
	계	132(100.0)	114(100.0)
직 업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2(.3)	-
	전문직	64(3.0)	-
	사무직	38(25.5)	-
	서비스·판매직	33(22.2)	-
	기능원·장기기계조작원	1(0.7)	-
	단순노무직	1(0.7)	-
	기타(학생 외)	10(6.7)	-
	주부	-	129(100.0)
	계	149(100.0)	129(100.0)
월평균 소득	101-200만원	12(8.1)	16(12.7)
	201-300만원	21(14.1)	42(33.3)
	301-400만원	45(30.2)	34(27.0)
	401-500만원	37(24.8)	21(16.7)
	501만원 이상	34(22.8)	13(10.3)
	계	149(100.0)	126(100.0)
동거 노부모 수	0명	103(79.2)	106(91.4)
	1명	17(13.1)	5(4.3)
	2명	10(7.7)	5(4.3)
	계	130(100.0)	116(100.0)
자녀수	1명	42(29.4)	27(22.0)
	2명	93(65.0)	72(58.5)
	3명	7(4.9)	20(16.3)
	4명	1(0.7)	4(3.3)
	계	143(100.0)	123(100.0)
총 가족수	3명	30(23.3)	26(22.6)
	4명	72(55.8)	62(53.9)
	5명	13(10.1)	19(16.5)
	6명	11(8.5)	4(3.5)
	7명	3(2.3)	2(1.7)
	8명	-	2(1.7)
	계	129(100.0)	115(100.0)
막내 자녀 연령	1세 이상-6세 미만	48(48.0)	47(46.5)
	6세 이상-11세 미만	-	42(41.6)
	11세 이상-13세	11(11.0)	12(11.9)
	계	100(100.0)	101(100.0)

무응답 제외

〈표 2〉 조사대상자의 주택 특성
단위 : 명(%)

항 목	구 분	취업주부 (N=149)	비취업주부 (N=129)
거주지역	서울	81(54.4)	65(50.8)
	서울외 지역	68(45.6)	63(49.2)
	계	149(100.0)	128(100.0)
주택의 형태	단독 주택	16(10.7)	7(5.4)
	저층아파트	15(10.1)	12(9.3)
	고층아파트	93(62.4)	96(74.4)
	다세대·다가구주택	25(16.8)	14(10.9)
	계	149(100.0)	129(100.0)
주택 소유형태	자가	93(62.4)	86(66.7)
	임대(전세,월세)	56(37.6)	43(33.3)
	계	149(100.0)	129(100.0)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20평이하	28(18.9)	16(12.5)
	21평-30평	47(31.8)	51(39.8)
	31평-40평	54(36.5)	53(41.4)
	41평이상	19(12.9)	8(6.3)
	계	148(100.0)	128(100.0)

무응답 제외

해결하는지 물었다. 또한 취업주부만을 대상으로는 일과 가사, 양육 동시수행의 어려운 정도와 남편의 가사 정도를 물어 보았다. 그 결과 집안일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은 주부 본인이 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시·친정 어머니나 도우미의 도움도 함께 받는 비율이 27.7%였다. 그리고 가사노동시간이 부족한 경우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족원의 가사분담 비율이 가장 높되, 완제품, 반제품, 도우미, 수면 여가시간의 이용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 반면 비취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족원의 가사분담과 수면·여가시간을 줄여 가사문제를 해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주부가 일과 가사·양육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비율은 2.8%에 불과했으며, 남편의 가사 정도는 가끔하거나 전혀하지 않는 비율이 80.4%였다. 이는 우리나라 남성들은 아직도 가족역할을 자신의 일로서 생각지 않으며, 또한 직장인 역할에 우선적으로 동일시하고 더욱 전념하기 때문에(김양호, 1997)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 참여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기사분담 상황

단위 : 명(%)

항 목	구 분	취업주부(N=149)	비취업주부(N=129)
집안일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	본 인	103(69.6)	125(96.9)
	시·친정어머니	24(16.2)	2(1.6)
	파출부·가정부	17(11.5)	2(1.6)
	남 편	1(0.7)	-
	기 타	3(2.0)	-
	계	148(100.0)	129(100.0)
가사노동시간이 부족한 경우	완제품반제품	27(18.2)	21(16.3)
	가정부 파출부	26(17.6)	8(6.2)
	가족원 기사분담	65(43.9)	45(34.9)
	수면 여가시간줄임	29(19.6)	53(41.1)
	가사노동대행서비스	1(0.7)	2(1.6)
	계	148(100.0)	129(100.0)
일과 가사, 양육의 동시수행에서 어려운점	매우 어렵다	84(59.6)	-
	조금 어렵다	53(37.6)	-
	어렵지 않다	4(2.8)	-
	계	141(100.0)	-
남편의 기사일 도와주는 정도	남편이 더 많이	5(3.6)	-
	반 반	22(15.9)	-
	가 꿈	77(55.8)	-
	전 혀	34(24.6)	-
	계	138(100.0)	-

무응답 제외

3. 조사대상자의 자녀양육방식

자녀보육의 주된 유형을 묻는 문항에서는 취업주부의 경우, 시설 및 친인척, 대리보육 등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나타났으나, 비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주로 본인이 돌보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보육시설 이용 시기는 조사대상자 모두 24개월 이후부터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12개월을 전후하여서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비취업 자녀 모두 60% 이상이 방과 후에는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높았으며, 방과후 자녀를 돌보아 주기를 원하는 사람으로는 비취업주부의 경우에는 80%이상이 본인이라고 응답했고,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본인과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돌보아 주기를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취업주부에게는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보

육시설의 탁아시간 충분여부와 자녀를 맡기는 위치로 어디가 적당한 가를 물어 보았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이 보육시설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고, 자녀를 맡기는 위치로는 60%이상이 주거단지 내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4.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코하우징 요구의 차이

1) 코하우징 주거환경요구

코하우징의 주거환경요구는 McCamant & Durrett(1994)과 Vestbro(2000)의 저서에 나타난 코하우징의 주요 특성을 연구자가 종합하여 자녀양육 영역에 대한 요구, 기사분담영역에 대한 요구, 공동의 공유공간 활용에 대한 요구, 거주자 참여에 의한 주거계획 및 관리 요구 범주로 묶어서 구성하였고 그에 따라 각 세부항목을 나누어 구성하였다.

〈표 4〉 자녀의 양육방식

단위 : 명(%)

항 목	구 분	취업주부(N=149)	비취업주부(N=129)
보육의 주된 유형	거의 내가돌본다	9(6.1)	59(45.7)
	나 + 보육시설, 학원	37(25.2)	52(40.3)
	시, 친정부모 + 보육시설, 학원	38(25.9)	4(3.1)
	하루중일 시, 친정부모	7(4.8)	3(2.3)
	가정보육, 시설보육	43(29.3)	11(8.5)
	대리양육자 종일제	13(8.8)	-
	계	147(100.0)	129(100.0)
보육시설 이용	12개월 이전	16(16.5)	-
	12개월이후	29(29.9)	3(4.8)
	24개월이후	52(53.6)	60(95.2)
	계	97(100.0)	63(100.0)
방과후 자녀의 시간	나와 주로	6(7.4)	23(28.0)
	조부모, 친인척	9(11.1)	-
	가정부, 위탁모	5(6.2)	-
	보호자 없이 형제	3(3.7)	1(1.2)
	또래친구	5(6.2)	4(4.9)
	학 원	51(63.0)	51(62.2)
	혼 자	1(1.2)	-
	기 타	1(1.2)	3(3.7)
	계	81(100.0)	82(100.0)
방과후 자녀를 돌보아 주길 원하는 사람	본 인	35(43.8)	69(84.1)
	시·친정부모	29(36.3)	7(8.5)
	파출부, 가정부	4(5.0)	1(1.2)
	친 척	-	1(1.2)
	학 교	4(5.0)	1(1.2)
	놀이방	2(2.5)	1(1.2)
	기 타	6(7.5)	2(2.4)
	계	80(100.0)	82(100.0)
보육시설 시간충분	매우 충분하지 않다	7(5.4)	-
	충분하지 않다	65(50.0)	-
	충분하다	49(37.7)	-
	매우 충분하다	9(6.9)	-
	계	130(100.0)	-
자녀를 맡기는 위치	직장근처	14(10.1)	-
	직장내	24(17.4)	-
	주거단지내	83(60.1)	-
	집	15(10.9)	-
	기타	2(1.4)	-
	계	138(100.0)	-

무응답 제외

<표 5> 코하우징 주거환경 요구

구 분		취업주부		비취업주부		t 값
		M	SD	M	SD	
자녀양육 영역에 대한 요구	주거단지내 어린이 놀이방	3.14	.62	3.01	.54	1.84
	주거단지내에서 육아 및 교육의 협조	3.17	.55	3.05	.46	1.98*
	어린이 놀이방이 또래친구 형성에 도움	3.31	.51	3.18	.46	2.19*
가사분담 영역에 대한 요구	가족전원이 가사분담하는 것이 바람직	3.42	.57	3.10	.61	4.46***
	가사분담을 위해 공간적 배려가 중요	3.26	.56	3.11	.55	2.27*
	식사실겸 부엌은 오픈형	3.08	.67	2.87	.70	2.50*
	비싸더라도 편리한 세탁시설의 구비	3.13	.75	2.84	.75	3.30***
	비싸더라도 편리한 부엌설비의 구비	3.02	.77	2.80	.73	2.45*
	여유있는 수납장소	3.46	.53	3.30	.59	2.30*
	개방적 형태의 수납장	2.90	.75	2.67	.73	2.52*
공동의 공유공간 활용 및 요구	공동부엌 및 공동식당	2.38	.69	2.22	.63	2.06*
	공동세탁실	2.36	.69	2.22	.64	1.80
	공동취미실	3.26	.61	3.23	.55	.27
	공동회의실	3.02	.58	2.91	.50	1.63
	방문객 숙소	2.56	.76	2.41	.61	1.72
	주민공동창고	2.87	.71	2.82	.65	.57
거주자참여에 의한 주거계획 및 관리요구	단지내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적극참여	3.09	.62	3.15	.52	.47
	단지 초기 개발부터 참여	3.29	.59	3.20	.49	1.32
	공동관리 참여	3.21	.54	3.11	.51	1.68

*p < 0.05, ***p < 0.001

(1) 자녀양육 영역에 대한 요구

자녀양육 영역에 대한 요구는 주거단지 내에서 육아 및 교육의 협조, 어린이 놀이방이 또래 친구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두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린이 놀이방이 또래친구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항목의 취업주부 평균점수가 3.31로서 가장 높았지만 두 항목 모두에서 취업주부의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주부의 경우, 직장일로인해 육아 및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비취업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추측된다.

(2) 가사분담영역에 대한 요구

가사분담영역에 대한 요구를 알아본 결과, 모든 문항에서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취업주부의 경우 가장 부담이 되는 가사수행에 따른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라 하겠다. 항목 중에서 여유있는 수납장소는 평균 점수 3.46, 3.30으로 두 집단 모두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고, 그 다음 순위로 취업주부의 경우, 가족원의 가사분담(3.42), 공간적 배려(3.26), 편리한 세탁시설 순으로, 비취업주부는 공간적 배려(3.11), 가족원의 가사분담(3.10), 식사실겸 부엌은 오픈형이 좋다(2.87)의 순으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취업주부의 경우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여유있는 수납장소와 가사분담을 위한 공간적 배려, 편리한 세탁시설은 앞으로 맞벌이 가족을 위한 코하우징 계획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된다.

이처럼 가사분담영역에 대한 요구도에서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족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가사노동이 가족(가장 유력한 것은 남편)에게 배분되어야 하나(노구치 미치코, 최재순 역, 1995: 153-163),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도 가족의 가사공유 정도는 매우 낮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가족의 가사참여를 조금이라도 증가시키고,

취업주부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편리한 공간 구조와 세탁시설, 수납장 등의 편리한 설비를 갖춘 주택 형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3) 공동의 공유공간 활용 및 요구

공동의 공유공간 활용 및 요구에 대해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항목은 공동부엌과 공동식당의 요구로, 이는 취업주부에게 걱정되는 매일의 식사문제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숙의 박사논문(1995)에서도 부인의 취업유무별 부부의 가사수행차이를 살펴본 결과, 시간요구량이 가장 많은 식생활 영역에 남편의 참여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취미실은 두 집단 모두 가장 높은 평균점수(3.26, 3.23)를 보였으며, 그 다음 순위로는 두 집단 모두 공동회의실(3.02, 2.91), 주민공동창고(2.87, 2.82)순으로 요구도를 나타냈다.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낸 공동취미실은 단지내 주민들과 공동으로 취미 생활을 배우고 익히는데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항목 중에서 두 집단간에 유일하게 유의한 차를 나타낸 공동부엌 및 식당의 요구는 전체 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평균점수(2.38, 2.22)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점은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코하우징에서 공동부엌 및 공동식당이 주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라는 점과 다르다고 하겠다. 이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엌 및 식당에 익숙하지 않은 조사대상자가 모두 낮은 요구도를 보인 결과라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내 코하우징의 계획시에는 선진국의 코하우징 공유공간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융통성있게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4) 거주자 참여에 의한 주거계획 및 관리요구

거주자 참여에 의한 주거계획 및 관리요구에서는 취업·비취업주부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두 집단 모두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이는 김상희(2001)의 거주자 참여형 주택개발을 위한 주의적 조사에서 나타난 공동건축 및 생활에 대한 의견 결과와도 일치한다.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 모두 가장 높은 평균점수(3.29, 3.20)를 나타낸 것은 단지 초기 개발부터 참여 항목으로, 이는 주민 스스로 처음부터 주거를 계획하고 개발하는데 있어 두 집단 모두 긍정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단지내 공동관리 참여에 있어서는 취업주부의 평균점수가 3.21로서 비취업주부보다 높은 요구도를 보인 반면, 단지내 서비스나 프로그램 적극참여에 있어서는 비취업주부(3.15)가 취업주부(3.09)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점차 거주자의 가치관과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주택사정에 여유가 생겨나면서(김상희, 2000) 거주자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한 주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2) 희망하는 코하우징 지역 및 주민구성

희망하는 코하우징 지역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 모두 대도시근교라고 응답한 비율(60.35%, 48.8%)이 가장 높았다. 이는 선진국 코하우징의 많은 수가, 대도시중심 보다는 대도시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과 일치한다 하겠다. 또한 희망하는 지역이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가 순위는 같았으나, 비취업주부의 경우는 전원주택지라고 응답한 비율도 23.2%나 되었다. 이는 직장과의 거리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취업주부보다 주거지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비취업주부의 특성상 나온 결과라고 추측된다.

또한 희망하는 코하우징의 주민구성은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라 <표 6>과 같은 유의한 분포차이를 보였다. 가장 희망하는 주민구성은 취업주부 57.5%, 비취업주부 57.1%로 두 집단 모두 공고를 통해서 뜻이 맞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 만들어진 선진국의 코하우징 주민구성이 협동체 생활을 지지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는 점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취업주부의 경우 친구끼리(17.8%), 기타(직장동료, 14.4%)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취업주부는 친구끼리(21.4%), 친척끼리(8.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표 6〉 희망하는 코하우징 지역 및 주민구성

단위 : 명(%)

항 목	조사대상	취업주부(N=149)	비취업주부(N=129)	c2검정
희망하는 코하우징 지역	대도시중심	12(8.2)	11(8.8)	$\chi^2=4.084$ df=4 NS
	대도시근교(신도시 포함)	88(60.3)	61(48.8)	
	중·소도시	15(10.3)	15(12.0)	
	전원주택지	23(15.8)	29(23.2)	
	휴양지	8(5.5)	9(7.2)	
	계	146(100.0)	125(100.0)	
희망하는 코하우징의 주민구성	공고를 통해 뜻이 맞는	84(57.5)	72(57.1)	$\chi^2=5.8164$ df=5 NS
	친구끼리	26(17.8)	27(21.4)	
	친척끼리	9(6.2)	11(8.7)	
	본인이 속한 단체회원끼리	6(4.1)	8(6.3)	
	기타(직장동료)	21(14.4)	8(6.3)	
	계	146(100.0)	126(100.0)	

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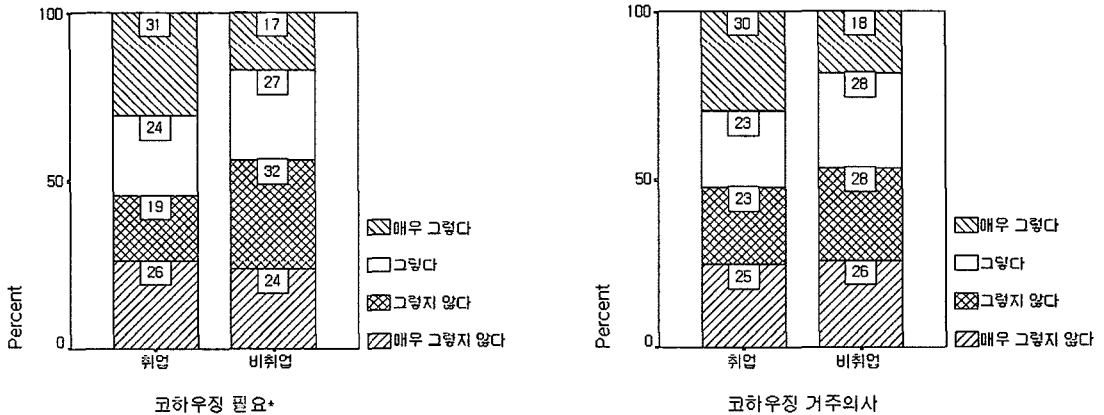
N.S. not significant

집단 모두 친척보다는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끼리 주민구성을 원하며, 취업주부의 경우 친척보다는 직장동료와 주민구성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우리나라 코하우징 필요 및 거주 의사

우리나라에서의 코하우징 필요도 및 거주 의사를 질문한 결과, 이전의 코하우징 주거환경 요구(표 5)에 비해 대체로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나, 두 항

목 모두 비취업주부보다 취업주부가 조금 더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코하우징의 필요 요구에 대해서는 취업주부(2.95)가 비취업주부(2.79)에 비해 더 높은 코하우징 요구를 나타냈다.($p < .05$ 유의적임) 그러나 코하우징 거주 의사를 묻는 문항에서는 두 집단 모두 낮은 점수를 보였고, 집단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코하우징의 개념이 아직 생소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문제 등에 대한 우려에



* 는 t값 2.05로 $p < .05$ 에서 유의적임

〈그림 1〉 취업유무에 따른 코하우징 필요 및 거주 의사

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코하우징의 요구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난 취업주부의 경우에도 코하우징의 의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거주 의사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이 없어 낮은 응답률을 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를 대상으로 가사수행 정도와 코하우징 요구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취업유무에 관계없이 가사수행은 대부분 주부가 수행하고 있었으며, 코하우징에 대한 요구도에서는 취업주부가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맞벌이 가족을 위한 코하우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 가족의 생활을 살펴보면, 취업유무와 상관없이 집안일은 주부 본인이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분담은 취업주부의 가족이 비취업주부의 가족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일과 가사·양육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아직도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양육방식은 취업주부의 경우 비취업주부에 비해 시설이나 대리모의 이용 비율이 높고, 보육시설의 이용시기도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주부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절반이상이 보육시설의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고 답했으며, 자녀를 맡기는 위치로는 주거단지 내에 맡기고 싶어 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코하우징 주거환경요구에서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라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가사분담영역에 대한 요구였는데, 이는 맞벌이 가족의 현재 가사수행 공유정도가 낮음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맞벌이 가족을 위한 코하우징에서는 효율적인 가사분담을 위한 공간설계 및 편리한 수납, 세탁, 부엌 등의 시설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주부와 비취업주

부 간에 요구 차이를 보인 단지내 자녀양육의 협조, 공동취사를 위해서는 코하우징 계획시 단지내 어린이 놀이방, 공동부엌 및 식당을 포함하는 공유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희망하는 코하우징의 지역 및 주민구성은 두 집단 모두 대도시 근교에서 공고를 통해 뜻이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이는 외국의 많은 사례에서 나타난 코하우징의 지역 및 주민구성과 일치된다고 하겠다.

셋째, 우리나라 코하우징의 필요는 낮았으나, 비취업주부보다 취업주부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하우징의 특징인 아동을 위한 좋은 환경, 인간의 동료애, 한 가구의 운영에 수반되는 가사노동의 단순화 등이 취업기혼여성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거주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는 두 집단 모두 낮았는데, 이는 이상적인 주거형태와 현실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사료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심하여 재산문제에 예민한 경우(최정신, 2004), 재산증식에 치중하다보면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대안으로서의 코하우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코하우징 요구의 차이를 살펴본 본 연구 결과, 서로 도우며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코하우징의 장점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정, 계획한다면 맞벌이 가족을 위한 새로운 주거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 및 결론으로부터 차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앞으로 맞벌이 가족을 위한 코하우징 개발을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보다 구체적인 디자인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코하우징 가구의 규모, 주택 유형, 공급 방식과 공동생활시설의 관리, 공동식사 횟수, 공동생활시설내 각 공간(공동부엌 및 식당, 어린이놀이방, 공동창고, 공동 세탁실 등)의 크기, 또한 개별주택에서는 각 주택의 규모, 침실 수, 개별주택내 각 공간(안방, 거실, 부엌, 식사실, 자녀실 등)의 크기, 부엌

의 유형, 수납공간, 욕실 수, 인테리어 등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리라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초등학생 이하인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연구문제의 관점이 가사작업이나 자녀양육에 맞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가족의 라이프사이클 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문제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가족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코하우징 요구의 차이에 대해서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 참고문헌

- 김대년, 신혜경, 이경희, 최재순, 홍형욱 편역(1995). *여성의 삶과 공간환경*. 한울아카데미.
- 김상희(2000). 한국에서의 거주자 참가형 주택 개발의 방향. *경남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육이론과 실천*, 10(2), 303-321.
- _____(2001). 거주자 참여형 주택개발을 위한 주의식 조사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2), 13-23.
- 김수경(1999). 중산층 맞벌이 가족의 주거요구. 연대 박사논문.
- _____, 정유선, 윤정숙(2002). 한·일 취업주부의 가사생활 실태 및 주거요구 비교.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3(1), 1-9.
- 김양호(1997). 맞벌이 가족 남성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논문.
- 김중인(2001). 도시형 코하우징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 남궁서영(2001). 코하우징의 공동생활시설 계획. 가톨릭대 석사논문.
-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99.5). *가사·생활일체 및 재택근무형 주택개발 연구*. 대한주택공사.
- 손승영, 박숙자, 전방지, 조순경, 진수희, 황석만(1999). *여성의 일과 삶의 질*. 미래인력연구센터.
- 신용재(2001). Cohousing에서 추구하는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2(1), 45-55.
- 신혜경(1991). 여성학적인 접근방법으로 본 도시여성 환경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이경희(2000). 공동주택 개발에 있어서 서구의 협동주택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논문집*, 38(2), 185-202.
- 이경희(1996). 주거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회 제12차 춘계학술 발표대회*, 73-103
- 이미숙(1995).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이옥경(2001). 한국의 노인용 코하우징 개발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 임윤희(2002). 코하우징의 공동육아환경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 제갈진(2004).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Aging in Place 개념으로서의 노인용 코하우징 계획안. 홍익대 석사논문.
- 조성은(1997).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 이대 박사논문.
- 주거학연구회(2000). *세계의 코하우징*. 교문사.
- 최정신(2003). 덴마크 자치관리모델 노인용 코하우징의 디자인 특성. *대한가정학회논문집*, 41(4), 1-19.
- _____(2003). 제3의 연령대를 위한 고령화 사회에의 도전: 스칸디나비아의 노인용 코하우징. *대한건축학회지*, 47(6), 55-63.
- _____(2003).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12), 129-138.
- _____(2004). 한부모가족의 생활지원 주거대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29-138.
- _____, 한주희(2003). 거주자참여에 의한 코하우징 디자인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 발표논문*.
- 한국여성개발원(1984). *현대가정과 자녀교육*. 한국여성개발원.
- _____(1998). 취업주부의 역할분담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_____(2002).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학회(1996). 생활문화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한국여성학회 제12차 춘계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73-103.
- 홍형욱, 이경희, 김대년, 최정신, 조재순, 권오정 (2003). 2020년 노인의 주거환경을 전망한다. 미래인력 연구보고서.
- 홍형욱(1995). 인간과 주거. 문운당.
- Choi, J. S., Paulsson, J. (2003). *A Study of Life and Physical Environment of Senior Cohousing in Scandinavian Countries. The Stockholm Symposium on Nordic Studies*, 55-73.
- Choi, J. S. (2004). *Perceptions of Senior Cohousing amongst Korean 50s Living in Seoul Area, ENHR 2004*, 2-15.
- Fromm, D. (1991). *Collaborative Communities*. Van Nostrand Reinhold.
- McCamant & Durrett (1994). *Cohousing*. Ten Speed Press.
- Koyabe. I. (1994). *Residents's Participation in the Design of Housing, A Study of the Swedish Collective House Färdsnäppen*: School of Architecture, KTH, Stockholm
- Vestbro, D. U. (1997). Collective Housing in Scandinavia-How Feminism Revised A Modernist Experiment.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14(4), 329-342.
- _____ (2000). From Collective Housing to Cohousing.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17(2), 164-177.
- 渡辺眞理, 木下庸子(1998). 孤の集住体. 住まいの図書館出版局.
- コウハウジング 研究会 外(2000). コウハウジング. 風土社.
- 小谷部育子(1997). コレクティブハウジイグの勧め. 丸善柱式會社.
- _____ (2004년 5월 20일 접수, 2004년 10월 1일 채택)